
국립국어원 소식

1. “한글, 피어나다”

- 562돌 한글날, 한글주간(10. 4.~11.) 맞아 한글 관련 문화 행사 풍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훈민정음 반포 562돌 한글날을 맞아 10월 4일부터 11일까지를 한글주간으로 선포하고, 한글날 큰잔치 조직위원회(국립국어원,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와 함께 경복궁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한글주간 행사의 주제는 “한글, 피어나다”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이 한글로 피어나고 아시아와 세계로 퍼져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0월 4일 늦은 4시부터 집현전 옛 터인 경복궁 수정전 앞 특설 무대에서 개최된 ‘한글주간 선포식’은 “꿈같은 역사, 숨결 같은 한글, 온 누리에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가 담긴 동요 60년을 통해 우리말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훈민정음 맛이 공연, 한글 노래 대합창, 여민락과 봉래의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처음 소개되는 한글노래 ‘한글, 피어나다’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과 한글 자모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노래로 가수 유열과 늘푸른오스카빌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불렀다.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경복궁 수정전에서는 기획 전시로 ‘한글, 스승전: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훈민정음’이 개최되었다. 한글 스승전은 세계 문화유산 훈민정음, 특별한 글자 한글, 한글을 빛낸 인물들, 다양한 한글 꿀의 등장 등 12개의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기획전을 준비한 서울여자대학교 한재준 교수는 “이번 전시는 특별히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진 산실(産室)이자 집현전 터인 수정전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글의 참 가치와 우수성, 한글정신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널리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글 스승전: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훈민정음

○ 일시: 2008. 10. 4.~11. 09:00~18:00

*10. 7.(화) 휴관

○ 장소: 경복궁 수정전

○ 전시 내용

1. 세계문화유산 훈민정음
2. 특별한 글자, 한글
3. 한글을 빛낸 인물들
4. 한글 민족 문화 발달의 스승
5. 세계 속의 한글
6. 한글의 산업화
7. 다양한 한글꼴의 등장
8. 아름답고 바른 한글꼴의 모색
9. 한글 교육과 한글날
10. 한글, 새로운 물결

11. 세종의 한글 구상(한글에 대한 착상과 공간)
12. 한글 창제를 도운 사람들

아울러 이번 전시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영인본) 이본 전시, 주시경 선생의 육필 원고, 미공개 한글 자료 등이 공개되었다.

또한 10월 9일 한글날에는 이른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있었으며, 늦은 2시부터는 세종문화회관 뒤풀에서 ‘한글춤 2350’과 대북공연인 ‘신명 타오’가 펼쳐졌다. ‘한글 춤 2350’은 매년 한글날을 기념해 선보이는 ‘한글 춤’ 시리즈의 18번째 작품으로 아름다운 우리글 한글의 함축적 상징과 이미지를 춤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2350’은 10자의 홀소리와 14자의 닿소리가 결합해 만들어 내는 완성형 문자의 수를 의미한다.

그밖에 한글단체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로는 휴대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10. 9. 한글회관), 유시시-내가 만든 한글 사랑 작품 잔치, 토박이말 살려 글쓰기 대회(10. 4. 경복궁), 전국 국어 대회-황금사전 선발 대회(10. 4.~11.), 한글 글꼴디자인 공모전(시상 10. 9./ 전시 10. 4.~11. 4. 세종대왕기념관), 외국인 한글 글씨 쓰기 대회(10. 10. 세종대왕기념관), 국어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학술대회(10. 8. 만해엔지오 교육센터), 풍자 동영상 대회(10. 4. 경복궁 수정전) 등이 펼쳐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글날 공식 누리집(<http://www.hangeuln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훈민정음 반포 재현 행사’를,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학당에서는 전국 외국인 한글 백일장(10. 8. 연세대 노천극장)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홍대 상상마당 등에서 개최된 ‘한글상상 2008: 한글 손 글씨, 거리를 물들이다’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2,350자를 한글폰트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사 건물에 한글 관련 미술 작품을 설치(제막식 10. 1. 10:00~, 문화체육관광부 청사)하여 광화문을 찾는 이들

에게 한글정신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한글문화연대와 함께 한글문화관 건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10. 1. 14:00~18:00,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를 개최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개정판을 발표하고 학술대회(10. 8. 국립국어원 강당)를 가졌으며, 『훈민정음 외국어판(한국어·영어판, 베트남어판, 몽골어판, 중국어판)』을 번역·출판하고 한국시인협회 소속 시인들과 함께 한글 24자모에 대한 디자인과 그림을 모아서 『한글 피어나다-문화의 옷을 입은 한글』을 출간하였다.



2.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개통

- 검색과 이용이 자유롭고 최신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사전 -

1999년 발간 이후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어 온 『표준국어대사전』이 10년 만에 '날개'를 달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을 10월 9일 한글날 개통했다. '사전 발간'이라고 하지 않고 '개통'이라고 한 것은 책자 형태의 인쇄된 사전이 아

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웹 사전이기 때문이다.

개정 『표준국어대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웹 사전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표준국어대사전』이 인터넷으로 제공되기는 했지만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춘 본격적인 웹 사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책자 사전과는 달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누구나 비용 없이 사전을 이용할 수 있다.

인쇄 사전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단지 하나의 단어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을 달아 검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속담만을 따로 볼 수도 있고 ‘가’로 시작하면서 ‘다’로 끝나는 말을 찾아볼 수도 있다.

셋째, 정보의 추가와 수정이 자유로운 인터넷 사전의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정보와 지식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전 체제의 변화뿐 아니라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 또한 대폭 보완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표제어를 추가하였다. ‘누리꾼, 누리집, 명예퇴직, 블로그’ 등이 그러한 예이다. ‘누리꾼’은 ‘네티즌’을 다듬은 말로 이미 널리 쓰이는 말이고 ‘명예퇴직’은 새로운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자리를 잡은 말이다. 이들이 1999년 사전 발간 이후로 널리 쓰이게 된 말이라면 ‘거명, 비밀번호’ 등과 같이 전부터 있었지만 사전에 미처 실지 못한 것들도 새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변화한 행정 조직이나 법률명 등도 실어 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어휘는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의미가 생겼을 때는 의미를 추가했는데 예를 들어 ‘방화벽(防火壁)’의 뜻풀이를 보면 1999년에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벽’이라는 뜻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판에는 컴퓨터의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장치라는 뜻풀이가 추가되었다.

둘째, 최신 정보를 수록하였다. 예를 들어 태양계의 경우 이전에는 9개

의 행성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지만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됨에 따라 8개의 행성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새롭게 표준화된 용어 등을 수록하였다. 색채를 나타내는 어휘인 ‘호두색, 비둘기색, 살구색’ 등이 그러한 예이다.

셋째, 사전의 뜻풀이, 용례 등을 정비하였다. 뜻풀이를 더욱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는 한편, 용례 또한 근거가 있고 더욱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3. 『훈민정음』 세계로 나아가다

3.1.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번역 출판

국립국어원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훈민정음의 원리를 한문으로 자세히 해설한 해례본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훈민정음』의 출판을 기획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같이 훈민정음은 세계가 인정한 기록유산이자 세계 문자사에서 유례없는 위대한 문자로 칭송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도 훈민정음 원본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외국인들에게는 더더욱 잘 알려지지 않았다.

3.2. 10월에 4개 외국어판 출판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훈민정음의 가치와 특징을 알기 쉽게 해설한 글과 훈민정음 원문 현대국어 번역을 한국어판과 영어판으로 한데 묶어 책으로 펴내게 되었으며 책 마지막에는 훈민정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인(해례본, 언해본)을 첨부하여 훈민정음의 전모를 알 수 있게 하였다. 한국어·영어판 번역 출판을 시작으로 중국어판, 베트남어판, 몽골어판을 번역 출판하였다. 앞으로도 러시아어판, 독일어판, 스페인어판 등의 번역과 출판을 계속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전 세계 언어로 훈민정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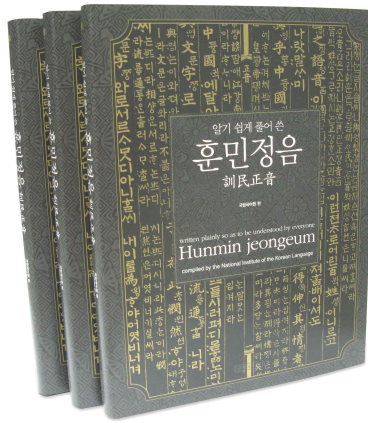
을 번역하여 국외에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3.3. 훈민정음은 실용적 편리성을 추구한 세종대왕의 정보화에 대한 상상력

한국은 우수한 정보화 기술력과 고급 콘텐츠 기반 그리고 뛰어난 문화 연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대한 정보 문화의 원천에는 그 바탕이 되는 한글이라는 문자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실용적 편리성을 추구한 세종의 정보화에 대한 상상력은 바로 2000년대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양질의 디지털 정보를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문자이다. 한글은 세계의 문자 중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디지털 기술로 조합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이다.

훈민정음은 세종어제 서문과 새로운 문자의 음가 및 운용법을 밝힌 ‘예의’편이 본문처럼 되어 있고 이를 해설한 ‘해례’편이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합자해, 용자례의 순으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권말에 정인지의 서문이 실려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현존본은 1940년에 발견된 것으로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국보 70호이다.

이번에 낸 책에서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의 언어학적 의의와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의 서지적 특징을 상세히 풀이하였다. 훈민정음 해설은 김주원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이상익 서울대 교수가, 훈민정음 현대어 번역은 강신항 성균관 명예교수가, 영어 번역은 신상순 전남대 명예교수가 담당하였다.



4. 방송 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한 아나운서 국어 사용 연구 발표회

- 제3회 국립국어원·SBS 방송 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 개최 -

국립국어원과 SBS(대표이사 사장 하금열)는 제3회 국립국어원·SBS 방송 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를 10월 22일 SBS 목동 사옥 9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발표 주제: 방송 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한 아나운서 국어 사용 연구

시간: 2008년 10월 22일(수) 오전 10:00~12:00

장소: SBS 목동 사옥(9층 중회의실)

양 기관은 지난 2005년 10월 방송 언어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은 이후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방송 언어의 경어법’,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언어’ 등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해 왔다. 올해의 공동 연구 목표는 SBS 아나운서들의 실제 국어 사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토론했다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SBS의 아나운서들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폭넓게 참여하였다. 공동 연구진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많은 아나운서가 외래어·외국어의 발음과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아나운서들의 참여와 관심은 방송 언어의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회의 세부 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고성환(방송대): 방송 언어의 몇 가지 문제

손범규(SBS): 스포츠 중계방송 언어 분석

최혜림(SBS): 아나운서의 외래어·외국어 발음 및 사용 실태 분석

정희창(국어원): 방송 언어의 문장 쓰기

구지민(국어원): 방송 언어와 발음

황용주(국어원): 방송 어휘 실태 분석

조태린(국어원): 아나운서 국어 사용의 내용적 측면

5. 국립국어원, 주한베트남대사관에 훈민정음 베트남어 번역본 증정

국립국어원은 2008년 10월 21일(화) 주한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하여 최근 베트남어로 번역된 훈민정음 50권을 기증하였다. 이번 기증식을 통해 이상규 국립국어원장과 팜 띠엔 밤 주한베트남대사는 양국의 언어 문화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규 원장은 한 베트남 양국의 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교육적 의의를 설명하였고, 팜 띠엔 밤 대사는 이 책이 베트남에 보급되면 한국의 문화유산이자 세계의 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베트남어로 훈민정음을 번역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6. 국립국어원, 주한몽골대사관에 훈민정음 몽골어 번역본 증정

국립국어원은 2008년 11월 14일(금) 주한몽골대사관을 방문하여 최근 몽골어로 번역된 훈민정음 50권을 기증하였다. 이번 기증식에서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은 게렐 주한몽골대사를 만나서 양국 언어의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한 친밀함에 대해 언급하였고, 게렐 대사 역시 한국과 몽골의 전통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점을 기초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 교류 및 친선의 중요성에 대해 화답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상규 원장은 한 몽골 양국의 문화와 인적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교육적 의의를 설명하였고, 게렐 대사는 이 책이 세종학당을 통해 몽골에 보급되면 한국의 문화유산이자 세계의 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어로 훈민정음을 번역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7. 국립국어원 미8군한국군지원단에 한국어 학습 교재 지원

국립국어원은 지난 2008년 9월 9일 업무 협정을 맺은 미8군한국군지원단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한국어 학습사전’ 등 한국어 교재 9종 487권을 지원하였다.

2008년 10월 31일 오후 4시 국립국어원장실에서 책을 직접 전달받은 미8군한국군지원단의 유성규 소령은 “국립국어원에서 지원한 교재가 미8군 장병들의 한국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이상규 원장은 “교재 지원뿐 아니라 미8군한국군지원단과의 지속적인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미8군 장병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고, 한미 간의 언어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 미8군 부대 안에서 진행되는 카투사 장병들에 대한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8.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초급) 방송 프로그램 사업 보고회 및 시연회 개최

국립국어원은 10월 31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사장 구관서)와 함께 개발한, 한국어교육 방송 프로그램 사업 보고회 및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국립국어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제작한 이번 방송 프로그램은 2007년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초급)'를 활용하여 중국어 25편, 베트남어 25편, 타갈로그어 25편, 총 75편으로 제작되었으며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4월 22일까지 방송할 예정이다.

이번 초급 방송 프로그램은 말하기, 듣기 기능에 중점을 두면서도 상황별 대화를 반복 청취할 수 있게 제작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도움이 되는 회화를 위주로, 보조 출연자도 실제 이주민을 출연시켜 동질감을 더하였다. 후반부에는 중국·베트남·필리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민족성을 고려한 각기 다른 코너를 구성하여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다문화 사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 방송 기간: 2008. 11. 3.~2009. 4. 22.(25주간)
- 방송 매체 및 총 편수: EBS Plus 2 채널/ 총 75편
- 방송 시간: 매주 월, 화, 수(총 3편), 06:00~06:30(30분)
- 방송과는 별도로 EBS 누리집을 통해 다시보기(VOD) 무료 서비스 제공

9. 한중일(韓中日) 언어문화 교류 확산을 위한 국제 학술 회의 개최

- 한중일 자국어 보급 정책 어디까지 왔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과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회장 이승률)는 11월 5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한중일 언어문화 교류 확산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행사를 통하여 자국어 보급을 위한 한중일의 관계 기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세종학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이 참석하였고 중국에서는 공자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교육부 한어판공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어국제보급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 참석하였으며 주한중국대사관과 주한일본대사관에서도 참석하여 이번 행사를 후원하였다.

이번 학술 행사는 한중일의 자국어 국외 보급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들이 참석하여 자국어 보급 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며 향후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0. 국회 강창일 의원 · 국립국어원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지역어 보전과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립국어원은 국회 강창일 의원과 함께 11월 6일(목)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어 보전과 육성 방안에 대하여 2008년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민주당 신낙균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한글학회 김승곤 회장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발표 주제: 지역어 보전과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 2008년 11월 6일 (목) 오후 2:00~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 1) 정도상(소설가, 거래말큰사전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표준어와 지역어
- 지정 토론자: 김정대(경남대 교수), 조태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2) 강영봉(교수, 제주대): 제주어의 가치
- 지정 토론자: 강정희(한남대 교수), 정승철(서울대 교수)

이번 토론회는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역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그 보전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제주어 전공 학자와 지역어를 작품 속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소설가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지역어 보전과 육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지역 문화와 지역 주민의 얼을 담고 있는 지역어가 표준어와 함께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11. 습지 생태, 언어학자와 생태학자가 함께 지켜요!

- 국립국어원, 경북대에서 ‘습지 생태와 생태언어 연구 학술대회’ 개최 -

지난 11월 4일 성황리에 폐막한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즈음하여 11월 11일 경북대에서는 ‘습지 생태와 생태 언어 연구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경북대 조류생태환경연구소와 경북대 한국어문 화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습지 생태 및 생태 언어 연구를 활성화하여 생태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언어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한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은 언어는 존재를 확인해 주는 소중한 도구인데, 생태와 관련된 우리말을 지키는 것은 사라져가는 우리의 습지 생태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발표했고, 습지 생태와 생태 언어의 공존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번 학술대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1부, 2부로 나눠 진행된 학술대회는 1부 생태 언어 분야에는 (사)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가 ‘언어 생태 전략과 문화중 다양성’, 남길임 경북대 교수가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표제항에 대한 사전학적 분석 -식물영역전문어를 중심으로’, 김홍석 공주대학교 교수가 ‘고문헌에 나타난 동식물의 어휘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자와 토론을 펼쳤다. 2부 습지 생태 분야 발표와 토론에는 주기재 부산대 교수와 노용호 우포늪생태관장, 이찬우 람사르재단 연구원, 전원배 우포생태학습원 사무국장이 참여해 각각 ‘람사르 총회의 의의와 습지의 중요성’, ‘우포늪생태관의 관리와 활동’, ‘낙동강 유역 습지의 현황과 보전 실태’, ‘대자연의 신비 우포늪’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소멸 위기의 생태 언어와 습지 생태 보전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생태학자와 언어학자가 함께 의견을 나눈 이런 학술대회를 공동 주관한 경북대 조류생태환경연구소 소장 박희천 교수는 “습지가 인류의 삶의 터전이었다면 언어는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무형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지를 잃고, 습지 속의 삶의 언어와 생명체의 이름을 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어와 생태의 학문적 접목을 국립국어원의 도움을 받아 처음 시도해 보았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생태 언어의 보전이 인간 삶의 보전이며, 생태 습지의 복원이 됨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회 개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12. 2008년 제7회 언어 정책 토론회

국립국어원에서는 2008년 제7회 언어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 제	지식 기반 국가 선진화 전략
발표자	김성태(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원장)
일 시	2008년 11월 19일(수) 14:00~16:00
장 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김성태 원장을 모시고 지식에 기반한 국가 선진화 전략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 원장은 우선 한국의 국가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상위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 및 지수 현황을 소개했다. 한국의 디지털 기회 지수는 세계 1위이고, 만 6세 이상 국민의 76.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의 수준이 국가 경쟁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 교통사고 사망률, 재해 방지율 등을 볼 때 정보화가 실생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래 정보화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 지향적 국정 운영 체계를 갖추고 정보화 환경에 뒤쳐진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성숙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킬 때 정보화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김 원장은 지식 기반 국가 선진화 전략의 핵심 요소로 수요, 공급, 정책의 관점에서 미래 역량 제고, 지식 기반 인프라 구축, 미래지향적인 선진 국정 운영 체계 수립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국가 정책을 입안하

고 수행하는 공무원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정 두뇌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미래 예측 방법론의 표준화 지침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IT 관련 전문 용어의 순화, 미래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의 체계, 정부 기관의 역할과 명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13. 2008 국외 한국어 교원 및 세종학당 학습자 초청 교육 실시

국립국어원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국외 한국어 교원’과 ‘세종학당·한국문화원 학습자’를 초청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11월 2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국외 한국어 교원 초청 교육은 메리츠화재연수원(기간: 11. 23.~12. 3.), 세종학당·한국문화원 학습자 초청 교육은 국립국어원(기간: 11. 24.~12. 4.)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14. 국방기술품질원, 국립국어원에 감사장 수여

국립국어원은 11월 28일 국방 과학 기술 용어 사전에 감수하여 사전의 성공적 발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국방 과학 기술 용어 사전은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 분야 과학 기술 용어의 표준화와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용어 해설, 약어, 영어·한글 색인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용어는 순수 국방 과학 기술 용어 외에도 민·군 공통 과학 기술 용어, 국방 연구 개발 및 획득 관련 용어 등 약 7,500항목에 이른다. 이 사전은 향후 구조화된 자료로 다듬어져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MS), 국립국어원 전문 용어 검색 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15. 제3차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국립국어원은 대구광역시청의 후원으로 지난 11월 28일(금)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3차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

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광역시청 김범일 시장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청 홍승환 정책홍보관, 대전광역시청 임묵 문화예술과장, 강원도청 강인수 문화예술과장, 충청남도청 양창엽 문화예술과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및 관계자 12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일시: 2008. 11. 28.(금) 오후 3:00~5:30

장소: 대구광역시청 2층 상황실

참석자:

- 국립국어원: 이상규 국립국어원장, 조남호 국어연구기획부장, 박용찬 국어연구기획팀장, 정호성 국어진흥교육팀장, 조태린 학예연구사 등
- 국어책임관: 서울특별시청,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강원도청, 충청북도청, 충청남도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경상북도청, 경상남도청 등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및 관계자
- 대구광역시청: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등 4명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2007년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우수 활동 부서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에 국립국어원장의 감사장을 수여하고, 본 회의에서는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어책임관의 역할 및 업무를 소개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자체 조사한 2007년도 공공 기관의 언어 사용 실태를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8년 11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로고·표어 사용 실태 결과도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어책임관과 더불어 국어기본법에 따라 지정되기 시작한 각 지역의 14개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의 업무 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편 대전광역시청 임묵 문화예술과장이 2007년도 대전광역시청의 국어책임관 활동 사례를 보고하고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들은 향후 국어책임관 제도를 더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였다.



16. 2008년 국어문화원 워크숍 개최

국립국어원은 지난 11월 28일(금)과 29일(토) 경북대에서 2008년 국어문화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어원장 등 국어원 관계자들과 전국 14곳의 국어원장, 상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 각 지역 국어문화원이 펼쳐 온 사업을 보고하고 평가하였다.

일시: 2008년 11월 28일(금) 14:00~29일(토) 13:00

장소: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1층 강의실

외부 초청 강사인 한겨레말글연구소의 최인호 소장은 ‘국내외 국어 수요와 국어문화원의 소임’이란 주제로 열악한 국어 환경 속에서 국어문화원이 활동 영역을 넓히고 명실상부 지역의 국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을 주문하였다.

곧바로 강원대를 시작으로 각 지역 국어문화원의 사업 결과 발표가 이어졌는데 지역민 국어 상담 등 기본 사업 외에 군인 대상 글쓰기 강좌(강원대), 문자 서비스 콘텐츠 개발(경상대), 우리말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월요 소식지 발송(경북대), 국회의원 홈페이지 인사말 문장 조사(국

어단체연합), 도서관 연계 국어문화학교(동아대),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상명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영남대), 고령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사 연수(이화여대), 전라도 사투리 경연 대회(전남대), 소외 여성을 위한 글쓰기 문화학교(전주대),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안) 수립(제주대), 청주 토박이말 조사(충북대), 한국어 포스터 제작(한국방송) 등 각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결과들을 함께 듣고 평가하였다. 올해로 국어문화원 지정 4년을 맞은 국어문화원 사업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워크숍이 열린 동안 제3차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가 대구 시청에서 개최되어(28일 오후) 국어문화원장들이 국어책임관을 만나 지역의 국어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잠시 마련하였다.



17.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008년 12월 12

일(금)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국어원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한국 문화 애호의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민의 수가 점차 늘어남은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다양한 목적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반 외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실시 이후에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한국어 교육 현장(국의 한글학교,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활동가들의 전문성 제고 등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05년 7월 28일 이후 시행되어 온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와 관련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18.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 국어원 방문

11월 28일 오후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 60명이 박재현, 이승희 교수의 인솔로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였다. 국어원에 도착한 학생들은 강당에서 국어원 홍보 동영상을 관람하고 국어원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층 현관에 전시된 전시물을 둘러보았다.

방문 일시: 2008년 11월 28일(금) 오후 16시 ~ 18시

방문자: 상명대학교 학생 60명, 인솔 교수 2명(박재현, 이승희 교수)



19.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국어원 방문

12월 4일 오전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45명이 양명희 교수의 인솔로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였다. 국어원에 도착한 학생들은 2층 회의실로 이동하여 국어원 홍보 동영상을 관람하고 국어원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층 현관에 전시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자료실을 둘러보았다.

방문 일시: 2008년 12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방문자: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45명, 인솔 교수 1명(양명희 교수)



20. 제81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개최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위원장: 이상규 국립국어원장)는 지난 11월 3일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1차 외래어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바야시 마코토(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로션버그(미국 미술 작가), 루고 페르난도(파라과이 대통령) 등 모두 47명의 유명 인물의 이름에 대한 한글 표기를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날 심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1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08. 11. 3.)

[인 명]

- 고바야시 마코토 小林誠 1944~ 일본 물리학자.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KEK) 명예교수(2006~). KEK 소립자원자핵연구소장(2003). 'CP 대칭성 붕괴의 기원 발견'으로, 마스카와 도시히데, 난부 요이치로와 함께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 (c)harge(電荷), (p)arity(反轉像).
- 난부 요이치로 南部陽一郎 1921~ 미국 물리학자. 시카고대 명예교수(1991~). 오사카(大阪)시립대 명예교수. '대칭성의 자발적 붕괴의 구조 발견'으로, 고바야시 마코토, 마스카와 도시히데와 함께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 로션버그, 로버트 Robert Rauschenberg 1925~2008 미국 미술 작가, 전위 예술가. 시각보다 체감을 중시하는 추상 표현주의, 팝 아트 대표자의 한 사람. 196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대표작 '콤바인Combines'(1950년대), '베드Bed'(1955), '모노그램(Monogram)'(1959) 등.
- 첸, 로저 Roger Tsien 1952~ 미국 화학자. 미국 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대 교수(1989~). 녹색 형광 단백질(GFP)의 발견과 개발로, 마

- 틴 첼피, 시모무라 오사무와 함께 200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
- 루고, 페르난도 Fernando Lugo 1952~ 파라과이 대통령. 남부 이타푸아(Itapúa) 주의 농가 태생. 중도 좌파. 전 성직자. 산페드로(San Pedro) 교구 주교(1994~2004). 두아르테(Nicanor Duarte Frutos) 대통령 후임. 2008년 8월 15일 취임. 임기 5년.
 - 르 클레지오, 장마리 귀스타브 Jean-Marie Gustave Le Clézio 1940~ 프랑스 소설가. 200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수상 이유는 “새로운 출발과 시적 모험, 관능적 열락의 문장가로, 지배적 문명을 초월한 인간성과 그 이면의 탐구”. 주요 작품은 장편 소설 ‘조서’(1963), 단편집 ‘발열’(1965), 장편집 ‘대홍수’(1966), ‘전쟁’(1970), ‘사막’(1980), ‘황금물고기’(1997), ‘혁명’(2003) 등.
 - 르테름, 이브(카미유 데지레) Yves(Camille Désiré) Leterme 1960~ 벨기에 총리. 중도 우파, 기독교 민주 플랑드르당(CD&V) 지도자. 부총리 겸 예산·지역 제도 개혁 장관(2007. 12. ~ 03. 3). 2008년 3월 20일 취임.
 - 마스카와 도시히데 益川敏英 1940~ 일본 물리학자. 교토(京都)산업대 이학부 교수(2003. 4. ~). 교토대 명예교수. 교토대 기초물리학 연구소장(1997). ‘CP 대칭성 붕괴의 기원 발견’으로, 고바야시 마코토, 난부 요이치로와 함께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 첼피, 마틴 Martin Chalfie 1947~ 미국 화학자.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녹색 형광 단백질(GFP)의 발견과 개발로, 시모무라 오사무, 로저 첼과 함께 2008년 노벨 화학상 수상.
 - 먼슨, 토머스(스펜서) Thomas (Spencer) Monson 1927~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모르몬교) 회장.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 태생. 고든 힝클리(Gordon B. Hinckley) 후임으로 제16대 회장에 취임(2008. 2. 4.). 미국에 600만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한국에는 8만여 명.
 - 모틀란테, 칼레마 Kgalema Motlanthe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부의장(2007. 12.~2008. 9.). ANC 사무국장(1997~2007). 사임한 음베키(Thabo Mbeki)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 2009년 4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 2008년 9월 25일 의회에서 선출.
- 몽타니에, 뤼크 Luc Montagnier 1932~ 프랑스 미생물학자. 세계에이즈연구예방재단 이사장. 전 프랑스 파스퇴르(Pasteur) 연구소 바이러스종양학부장.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발견으로, 프랑수아즈 바레시누시, 하랄트 추어하우젠과 함께 2008년 노벨 의학·생리학상 수상.
 - 바레시누시, 프랑수아즈 Françoise Barré-Sinoussi 1947~ 프랑스 미생물학자.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감염제어 유닛장(長).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발견으로, 뤼크 몽타니에, 하랄트 추어하우젠과 함께 2008년 노벨 의학·생리학상 수상.
 - 브라이스, 켄틴(앨리스 루이즈) Quentin(Alice Louise) Bryce 1942~ 오스트레일리아 총독. 오스트레일리아 역사상 첫 여성 연방 총독(2008. 9. 5.~). 동북부 퀸즐랜드 주 중부의 작은 도시 롱리치(Longreach) 태생 변호사 출신으로 전 퀸즐랜드 주 총독, 제24대 마이클 제프리(Michael Jeffery) 총독의 후임. 임기 5년.
 - 블랙, 실라 Cilla Black 1943~ 영국 가수, 탤런트. 잉글랜드 북부 머지사이드(Merseyside)주 리버풀(Liverpool) 출신. 텔레비전 프로그램 '블라인드 데이트(Blind Date)'의 사회자.
 - 비에이라, 주앙 베르나르두 João Bernardo Vieira 1939~ 기니비사우 대통령. 1960년 기니 카보베르데 독립 아프리카당(PAIGC)에 입당. 남부 전선 지휘관 등을 거쳐, 독립 후 1978년 총리. 1980년 11월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 혁명평의회 의장(원수)으로 취임. 1994년 첫 복수 정당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1999년 일부 군의 반란으로 포르투갈에 망명. 2005년 7월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당선. 10월 1일 취임.
 - 세르듀코프, 아나톨리 (에두아르도비치) Anatoly E(duardovich) Serdyukov Анатолий Эдуардович Сердюков 1962~ 러시아 국방장관. 2007년 9월 24일 현직.
 - 세제르, 에메 (페르낭) Aimé (Fernand) Césaire 1913~2008 프랑스 시인, 소설가, 정치가. 4월 17일 프랑스 해외 주 마르티니크

(Martinique)의 포르드프랑스(Fort de France)에서 사망. 네그리튀드(négritude)의 대표적 시인. 세네갈 시인으로 후에 대통령을 지낸 상고르(Léopold Senghor)와 파리에서 네그리튀드(黑人性) 운동을 전개, 식민지 흑인 지식인의 자각을 촉구. 1939년 장편시 '귀향 노트', 1946년 시집 '기적의 무기', 1966년 희곡 '콩고의 한 계절', 1969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희곡 '템페스트'의 아프리카 판 등을 발표.

- 솔티, 수잔 Suzanne Scholte 1959~ 미국 여성 인권 운동가. 코네티컷 주 노워크(Norwalk) 태생. 디펜스 포럼 재단(DFF) 회장(1989~). 2008년 제9회 서울 평화상 수상자.
- 솜차이 웅사왓 Somchai Wongsawat 1947~ 타이 총리. 부총리 겸 교육장관(2008. 2.~9.). 판사 출신으로 1999년부터 법무차관과 노동차관을 역임했으며, 국민의힘당(PPP=People's Power Party) 부당수. 탁신(Thaksin)전 총리의 매제. 2008년 9월 현직.
- 술레이만, 미셸 Michel Suleiman 1948~ 레바논 대통령. 전 정부군 사령관(1998~2008). 에밀 라우드(Emile Lahoud) 전 대통령(1998~2007)의 후임. 2008년 5월 25일 취임. 임기 6년.
- 스윈턴, (캐서린 머틸다) "틸다"(Katherine Mathilda) "Tilda" Swinton 1960~ 영국 여배우.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케임브리지대 졸업, 영화 '마이클 클레이턴(Michael Clayton)'에서 변호사 역으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수상(2008. 2. 24.). 1991년 '에드워드 2세(Edward II)'로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 스티븐, 마커스 Marcus Stephen 1969~ 나우루 대통령. 2007년 12월 19일 취임. 임기 3년. 전 역도 선수. 루드위그 스코티(Ludwig Scotty) 대통령의 후임.
- 시모무라 오사무 下村脩 1928~ 일본 화학자. 미국 매사추세츠 주 거주. 미국 우즈홀 해양생물학연구소 수석연구원(1982~2001). 보스턴대 명예 교수. 녹색 형광 단백질(GFP)의 발견과 개발로, 로저 첸, 마틴 챌피와 함께 2008년 노벨 화학상 수상.

- 아카호시 게이치 赤星慶治 1951~ 일본 해상 막료장. 제4항공 사령, 해상 막료 감리 부장, 항공 집단 사령관을 거쳐 사세보(佐世保)지방 총감(2007~08.), 요시카와 에이치(吉川榮治) 해상 막료장(2006~08) 후임.
- 야다브, 람 바란 Ram Baran Yadav 1948~ 네팔 대통령. 전 의회 제2당 네팔 회의파(NCP) 간사장. 2008년 7월 21일 네팔 제헌의회에서 선출.
- 오딩가, 라일라(아몰로) Raila(Amolo) Odinga 1945~ 케냐 총리(2008. 4. 13.~). 최대 야당 오렌지 민주운동(ODM=Orange Democratic Movement) 당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와 같은 루오(Luo)족.
- 오바마, 미셸 (라 본) Michelle (La Vaughn) Obama 1964~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상원의원의 부인. 프린스턴대와 하버드 로스쿨 졸업. 시카고대 병원 부원장(2005~2008). 변호사.
- 오바이드, 토라야 Thoraya Obaid 유엔 인구기금 사무국장.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2001년 1월 취임. 1967년에 창설된 인구활동신탁기금을 유엔 인구활동기금(UNFPA)으로 개칭. 1987년에 다시 유엔 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UNFPA)으로 개칭. 약칭은 그대로. 가족 계획 등 개발 도상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원조와 인구 통계의 수집, 분석이 주업무. 본부 뉴욕.
- 위드마크, 리처드 Richard Widmark 1914~2008 미국 영화 배우. 인상적 풍모를 지닌 성격 배우. 헨리 해서웨이(Henry Hathaway) 감독의 '죽음의 키스 Kiss of Death'(1947)에서 아카데미상 남우 조연상 후보. '서부로 가는 길 The Way West'(1967)에서 존 웨인(John Wayne),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ewart), 커크 더글러스 (Kirk Douglas)와 공연. 주요 작품은 '돈 보더 투 노크 Don't Bother to Knock'(1952), '알라모 The Alamo'(1960), '투 로드 투게더 Two Rode Together'(1961), '뉘른베르크 재판 Judgement at Nuremberg [Nürnberg]'(1961) 등.

- 자르다리, 아시프 알리 Asif Ali Zardari 1955~ 파키스탄 대통령 (2008. 9. 9.~). 파키스탄 인민당(PPP) 공동 의장. 베나지르 부토 (Benazir Bhutto) 전 총리의 남편.
- 존슨, (알렉산더) 보리스(디 페펠) (Alexander) Boris(de Pfeffel) Johnson 1964~ 영국 런던 시장. 하원 의원. 전 저널리스트.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브뤼셀 특파원, 보수계 잡지의 편집장 등 역임. 2008년 5월 2일 당선.
- 줍코프, 빅토르 (알렉세예비치) Viktor A(lekseyevich) Zubkov Викто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Зубков 1941~ 러시아 제1 부총리. 전 총리(2007. 9. ~ 08. 5.). 국영 농장(쇼호스 Sovkhoz) 간부 등을 거쳐 상트페테르부르크(Sankt Peterburg)시 대외 관계 위원회 부의장(1992~93), 2001년 재무부 제1차관, 2000년 금융감시국장. 2008년 5월 12일 현직.
- 추어하우젠, 하랄트 Harald zur Hausen 1936~ 독일 의학자. 독일 암 센터 명예 교수.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인간 유두종(乳頭腫) 바이러스(HPV)의 발견으로, 뢰크 몽타니에, 프랑수아즈 바레시누시와 함께 2008년 노벨 의학·생리학상 수상.
- 창기라이, 모건 Morgan Tsvangirai 1952~ 짐바브웨 총리. 민주변혁 운동(MDC) 의장(1999~). 중부의 작은 마을 구츠 출신. 벽돌공인 아버지 밑에서 아홉 형제자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학교는 도중에 그만두고, 1974년부터 10년간 광산에서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 아내 수전과 3남 3녀. 2008년 9월 15일 현직.
- 카우언, 브라이언 Brian Cowen 1960~ 아일랜드 총리. 전 부총리 겸 재무 장관. 노동(1991~93), 교통·에너지(1993~94), 보건·아동(1997~2000), 외무(2000~04), 재무(2004. 9.~) 장관. 버티 어헌 (Bertie Ahern) 총리 후임.
- 쿠드린, 알렉세이 (레오니도비치) Aleksei L(eonidovich) Kudrin Алексей Леонидович Кудрин 1960~ 러시아 부총리. 겸무 재무장관 (2000. 5. 17.~).
- 크루그먼, 폴 Paul Krugman 1953~ 미국 경제학자, 언론인. 프린스

턴대 경제학과 교수(2000~).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2000~). 예일, 스탠퍼드, MIT 교수(1978~96).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1982~83).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신무역 이론으로,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 탈라트, 메흐메트 알리 Mehmet Ali Talat 1952~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대통령. 북키프로스 키레니아(Kyrenia) 태생. 북키프로스 교육 문화 장관, 부총리 역임. 1996년 공화국 터키당 당수. 2004년 총리, 2005년 4월 현직.
- 토메잉, 리토크와 Litokwa Tomeing 1939~ 마셜 제도 대통령. 라타크(Ratak) 열도 와티에(Wotie) 섬 아톨(Atoll) 태생. 2008년 1월 취임. 임기 4년. 케사이 노트(Kessai H. Note) 대통령(2000. 1.~08. 1.) 후임.
- 틴레이, 지그메(요세르) Jigme(Yoser) Thinley 1949~ 부탄 총리. 첫 민선 총리. 인도와 미국에서 유학한 후 1976년 국가 공무원. 총리 겸 내무 겸 문화 장관(2003. 6.~04. 8.), 내무 겸 문화 장관(2004. 8.~08. 3.).
- 파딜라, 오스발도 Osvaldo Padilla 1942~ 주한 교황청 대사. 필리핀 세부(Cebu) 출신. 대주교. 주한 대사(2008. 4. 12. ~). 겸무 몽골 주재 교황청 대사(2008. 4. 26.~). 전 파나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대사. 코스타리카 대사(2003~08. 4.).
- 페일린, 세라 Sarah Palin 1964~ 미국 여성 정치가 알래스카 주지사(2006.~) 알래스카 주 와실라(Wasilla)시 시장(1996~2002).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부통령 후보.
- 프라찬다 Prachanda 본명 푸슈파 카말 다할 Pushpa Kamal Dahal 1954~ 네팔 총리. 전 네팔 공산당 모택동 주의파 서기장. 2008년 8월 15일 네팔 제헌의회에서 선출.
- 헤스턴, 찰턴 Charlton Heston 1923~2008 미국 영화 배우. 대규모 역사물의 주인공으로 활약. 미국 영화 배우 조합(SAG) 회장(1965~71), 전미 총기 협회(NRA) 회장(1998~2003). 주요 작품. '페르 귄트 Peer Gynt'(1941), '지상 최대의 쇼 The Greatest Show on

Earth'(1952), 세실 데일(Cecil B. De Mille) 감독의 '십계 The Ten Commandments'(1956), 윌리엄 와일러(William Wyler) 감독의 '벤 허 Ben-Hur'(아카데미 남우주연상, 1959), '위대한 생애의 이야기 The Greatest Story Ever Told'(1963),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 Antony and Cleopatra'(1972) 등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

- 호프만, 알베르트 Albert Hofmann 1906~2008 스위스 화학자. 스위스 중북부 바덴(Baden) 출신. 1943년 호밀에 자생하는 곰팡이를 이용해, 무색·무미·무취의 분말 엘에스디(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를 합성. 강력한 환각 유발제로 마약으로 지정되어 법률로 규제.
- 힐러리, 패트릭(존) Patrick(John) Hillery 1923~2008 아일랜드 정치가. 대통령(1976~90), 1951년 하원 의원, 교육(1959~65), 통산(1965~66), 노동(1966~69), 외무(1969~73) 장관. 유럽 경제공동체(EEC) 사회 문제 담당 유럽 위원(1973~76).

21. 제82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위원장: 이상규 국립국어원장)는 12월 11일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티머시 가이트너'를 비롯한 '루피아 반다' 잠비아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인물의 이름 표기를 포함한 총 62개의 외국 인·지명의 우리말 표기를 심의, 결정했다.

특히, 이 밖에 옛 소련에서 1991년에 독립함과 동시에 국명을 바꾼 '벨로루시'의 표기를 새 국명에 맞게 '벨라루스'(정식 명칭은 '벨라루스 공화국')로 통일해서 적기로 했다. 이날 심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2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08. 12. 11.)

[인 명](35개)

- 가이트너, 티머시 Timothy Geithner 1961~ 미국 재무부 장관. 내정

- 자. 국제금융 담당 재무부 차관(1999~2001).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2003. 11.~)
- 기브스, 로버트 Robert Gibbs 1971~ 미국 대통령 보도관. 내정자. 전 오바마 선거운동본부 보도 책임자, 홍보 담당 참모. 2004년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홍보관.
 - 나시드, 모하메드 Mohamed Nasheed 1967~ 몰디브 대통령. 몰디브 민주당 당수(2003. 11.~).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2008. 11.)
 - 나폴리타노, 재닛 Janet Napolitano 1957~ 미국 국토안전보장부 장관. 내정자. 애리조나주 검찰총장(1999~2003). 애리조나주 지사(2002 ~).
 - 누하크, 폼사반 Nouhak Phoumsavanh 1914~2008 라오스 정치가. 대통령(1992~98). 반프랑스, 항일(抗日)의 반식민지 투쟁을 이끈 초대 혁명 투사.
 - 던우디, 앤 Ann E. Dunwoody 1953~ 미국 육군 대장, 군수사령관. 미국 여성 최초의 육군 4성 장군.
 - 데켄, 알폰스 Alfons Deeken 1932~ 독일 철학자. 가톨릭 사제. 일본 조치(上智)대 명예 교수. 30년 동안, 조치대학에서 '죽음의 철학' 등을 강의. 사생학(死生學)의 제일인자.
 - 라베마낭자라, 샤를 Charles Rabemananjara 1947~ 마다가스카르 정치가. 총리(2007. 1. 25.~), 내무장관 겸무.
 - 라이스, 수전 Susan Rice 1964~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의 외교정책 고문.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1997~200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프리카 부장(1993~97).
 - 로머, 크리스티나 Christina Romer 1958~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내정자. 여성 경제학자.
 - 리버풀, 니컬러스 (오빌) Nicholas (Orville) Liverpool 1934~ 도미니카 대통령. 2003년 10월 2일 취임. 임기 5년.
 - 마쿠자, 베르나르 Bernard Makuza 1961~ 르완다 정치가. 총리(2000. 3.~)

- 반다, 루피아 (브웨자니) Rupiah (Bwezani) Banda 1937~ 잠비아 대통령. 전 대통령 대행, 부통령(2006~2008). 무와나와사(Levy Mwanawasa) 대통령의 사망으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2008. 10. 30.)에서 당선.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인 2011년까지.
- 베세라, 하비에 Xavier Becerra 1958~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주). 1993년부터 16년간 의회에서 활동.
- 브랜슨, 리처드 (찰스 니컬러스) Richard (Charles Nicholas) Branson 1950~ 영국의 실업가. 열기구로 처음 대서양(1987), 태평양(1991) 횡단에 성공.
- 사이토 데쓰오 齊藤鐵夫 1952~ 일본 정치가. 환경상(2008. 8.~9.). 공학 박사.
- 쉐, 밀라 Mila Schön 1919~2008 이탈리아 디자이너. 이탈리아령(領)이었던 크로아티아의 달마티아(Dalmatia) 태생. 단순하고 우아한 고급 여성복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고객으로 케네디(Kennedy) 전 미국 대통령 부인 재클린과 미국 부호 록펠러(Rockefeller) 일가 등이 있음.
- 스즈키 쓰네오 鈴木恒夫 1941~ 일본 정치가. 문부 과학상(2008. 8.~9.).
- 신세키, 에릭 Eric Shinseki 1942~ 미국 보훈부 장관. 내정자. 육군참모총장(1999~2003). 하와이 출신 일본계 3세.
- 앙굴라, 나하스 Nahas Angula 1943~ 나미비아 정치가. 총리(2005. 3. 21.~).
- 우마루, 세이니 Seyni Oumarou 1950~ 니제르 정치가. 총리(2007.6.~).
- 오재그, 피터 Peter Orszag 1969~ 미국 행정관리 예산국(OMB) 국장. 내정자. 의회 예산국 국장(2007. 1.~).
- 이매뉴엘, 람 Rahm Emanuel 1959~ 미국 대통령 수석 보좌관. 내정자. 연방 하원의원(일리노이 주, 2002~). 백악관 정책 고문(1993~98).
- 에예게 은동, 장 Jean Eyeghe Ndong 1946~ 가봉 정치가. 총리(2006.

1. 20.~).
- 카비, 마르티뉴 은다파 Martinho Ndafo Cabi 1957~ 기니비사우 정치가. 총리(2007. 4.~).
- 쿠아테, 랑사나 Lansana Kouyaté 1950~ 기니 정치가. 총리(2007.3.~).
- 키, 존 (필립) John (Phillip) Key 1961~ 뉴질랜드 총리(2008. 11. 19.~). 국민당 당수(2006. 11.~). 헬렌 크라크(Helen Clark) 총리 후임.
- 키슬랴크,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Sergei (Ivanovich) Kislyak Ceppe й Иванович Кй сляк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 전 외무차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상주 대표(1998~2003). 2008년 7월 26일 현직.
- 파이만, 베르너 Werner Faymann 1960~ 오스트리아 총리(2008. 12. 2.~). 사회민주당(SPÖ) 당수(2008. 6.~)
- 하야시 모토오 林 幹雄 1947~ 일본 정치가. 국가 공안 위원장 겸 오키나와(沖縄) · 북방 담당상(2008. 8.~9.).
- 하야시 요시마사 林 芳正 1961~ 일본 방위상. 전 부내각상, 당 정조 부회장. 2008년 8월 2일 현직.
- 호카노조 겐이치로 外薗健一郎 1951~ 일본 항공막료장. 전 방위성 정보본부장(2008. 3.~11.). 정부 견해와 다른 내용의 논문 응모로 경질된 항공 자위대 다모가미(田母神俊雄) 막료장의 후임. 2008년 11월 7일 현직.
- 홀더, 에릭 Eric Holder 1951~ 미국 법무장관. 내정자.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의 법률 고문. 법무 부장관(1997~2001). 워싱턴에서 변호사와 판 · 검사 역임(1988~97).
- 라우션버그, 로버트 Robert Rauschenberg 1925~2008 미국 미술 작가, 전위 예술가. ※81차 심의 결정안에서 '로션버그, 로버트'로 되었던 것을 정정함.
- 니클라우스, 잭 Jack Nicklaus 은퇴한 미국 골프 선수. ※제8차 회의(1995. 7. 14.)에서 '니클로스, 잭'으로 정한 바 있으나, 본인의 요청으로 원래 발음을 반영하여 수정함.

[지 명](2개)

- 도야 호 洞爺湖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남서부, 아부타 군(虻田郡) 아부타 정(虻田町) · 도야 촌(洞爺村)과 우스 군(有珠郡) 소베쓰 정(壯瞥町)에 걸쳐 있는 칼데라(caldera) 호(湖). 넓이 70.7Km². ※지명으로 사용할 때는 ‘도야코’(洞爺湖)로 함(예: 도야코 정(洞爺湖 町)).
- 벨라루스 Belarus 유럽 동쪽, 폴란드와 인접한 공화국. 소련의 구성 공화국이었으나 1991년 8월 독립, 9월 19일 현 국명으로 변경. 공식 명칭 ‘벨라루스 공화국’(Republic of Belarus). 구칭은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Minsk). 넓이 20만 7,600km², 인구 970만 명(2006). 공용어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

※ 오바마 정권 조각에서 거명되는 기타 인사들(25명)

- △ 액셀로드, 데이비드 David Axelrod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 내정. 버락 오바마 선거 캠프 수석전략가
- △ 재럿, 밸러리 Valerie Jarrett 백악관 선임고문 내정자. 오바마 정권인수위 공동위원장
- △ 플러프, 데이비드 David Plouffe 오바마 캠프 선거운동총책임자
- △ 스타인버그, 제임스 James Steinberg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국무부 부장관 내정
- △ 라우스, 피트 Pete Rouse 미국 상원의원실 비서실장
- △ 퍼먼, 제이슨 Jason Furman 오바마 캠프 경제정책 담당
- △ 굴즈비, 오스틴 Austan Goolsbee 오바마 캠프 경제자문역
- △ 더빈, 리처드 조지프 딕 Richard Joseph “Dick” Durbin 미국 상원 의원
- △ 스텐, 앤디 Andy Stern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위원장
- △ 크레이그, 그레그 Greg Craig(Gregory Craig) 전 국무부 정책기획

실장

- △ 버츠, 커샌드라 Cassandra Butts 미국진보센터 부소장
- △ 베넨슨, 조엘 Joel Benenson 오바마 캠프 여론조사 담당
- △ 프리츠커, 페니 Penny Pritzker 하이엣 클래식 레지던스 최고경영자. 상무장관 후보
- △ 그리핀, 필 Phil Griffin MSNBC 사장
- △ 베이더, 제프리 Jeffrey Bader 오바마 캠프에서 동아시아정책총괄 및 중국팀장. 전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소장. 전 국무부 부차관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후보
- △ 자누지, 프랭크 Frank Jannuzzi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의 한반도정책팀장. 상원 외교위 전문위원.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분석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내정
- △ 플레이크, 고든 Gordon Flake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후보
- △ 스코크로프트, 브렌트 Brent Scowcroft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미국 공화당 계열 외교안보 그룹의 원로. 오바마 당선인이 자주 자문을 구함
- △ 시퍼, 마이클 Michael Schiffer 스탠리재단 정책분석관. 전 일본 국방연구원 펠로
- △ 미첼, 데릭 Derek Mitchell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 △ 프리먼, 리처드 Richard Freeman 미국 하버드대 교수
- △ 섯폰, 모나 Mona Sutphen 오바마 정부 백악관 비서관 부실장 내정
- △ 메시나, 짐 Jim Messina 오바마 정부 백악관 비서관 부실장 내정
- △ 클레먼스, 스티븐 Steven Clemons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칸재단 연구원
- △ 마부바니, 키쇼어 Kishore Mabubani 싱가포르 국립대 리관유 공정책대학원장